

프리미슬 보이타는 차세대 금관주자로 격찬 받는 호른니스트다. 2010년 뮌헨 ARD 국제 콩쿠르에서 1위와 함께 청중상, 신작 연주 대상과 더불어 뉴 베스트팔렌 필하모니로부터의 특상을 수상했다. 2011년 본 베토벤 페스티벌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후에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주자들에게 수여하는 명망 있는 상인 베토벤링을 받았다.

1983년 체코의 브르노에서 태어난 프리미슬은 10□ .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프라하 음악원에서 베드리히 틸샤르를 사사한 후에는 독일로 넘어가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2010년까지 크리스찬 프리드리히 달만을 사사했다. 학창시절부터 일찍이 그는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 관현악단, 유럽연합 청소년 관현악단, 프라하 필하모닉의 단원으로 활동했었다.

호른 솔리스트로서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아카데미 실내 관현악단,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슈투트가르트 남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관현악단, 비스바덴 국립극장 관현악단, 프라하 필하모니아 등 유수의 저명한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했으며, 본 베토벤 페스티벌,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 등 세계 각지의 저명한 음악 페스티벌들에서 리사이틀과 솔로 콘서트를 가졌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WDR)의 호른 수석을 역임하기전에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관현악단과 베를린 슈타츠키펠레에서도 같은 지위로 활동했었다. 교수자로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쾰른 음대에서 호른 강의를 했으며,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일본, 중국, 핀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마스터클래스를 가졌다. 피아니스트 토모코 사와노와 토비아스 코흐 등과 함께 비평가들의 절찬을 받은 음반을 내기도 했다. 프라하 하이든 앙상블과 함께 미카엘 하이든과 요제프 하이든의 호른 협주곡들을 모두 녹음한 그의 최신 앨범은 2018년 가을에 출시되어 BBC 뮤직 매거진에 이달의 클래식 앨범으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프리미슬 보이타는 클라우스 페어가 제작한 프렌치 호른(모델 3)을 연주한다. 고악기를 위한 공연에서는 다니엘 폭스(비엔나)의 에프 호른과 쿠르투아(파리)의 내추럴 호른을 연주한다.